

일본어회화에서 말차림관리를 통한 레절표현방식

김 설 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어레절을 잘 지키는것은 언어생활을 문화성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어레절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높이는 말을 잘 가려쓰며 반말을 하거나 란잡한 룡말을 하는 현상을 없애야 합니다. 낯고 저속한 말, 야비하고 몰상식한 말, 속된 말을 대상이나 정황을 고려함이 없이 망탕 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7권 246페이지)

언어레절을 잘 지키는것은 언어생활을 문화성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이다.

언어레절에 관한 문제는 나이와 직위, 성별 등이 각이한 사람들호상간의 인간관계를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어있는 룡리나 개별적사람들사이에 지켜야 할 룡리를 언어사용에 구현하는 문제라고 볼수 있다.

특히 상대방을 마주하고 진행하는 가장 적극적인 언어행위인 회화에서 레절을 잘 지키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나신다.

이 글에서는 일본어회화에서 말차림관리를 통한 레절표현방식에 대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말차림관리란 상대방과의 관계나 장면에 따라 회화참가자 쌍방이 말차림수단들을 적절하게 리용하여 회화를 원활하게 진행해나가는것을 말한다.

일본어에서의 말차림을 보면 크게 높임, 같음, 낮춤의 구분이 있는데 이러한 말차림은 문장끝에서 정중체와 보통체, 비속체로 나타난다.

일본어말차림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쓰이는것은 정중체와 보통체이다.

정중체는 말하는 사람이 말을 듣는 사람이나 화제에 오르는 사람을 높여 말할 때에 쓰는 말체로서 일반적인 높임을 나타내는 표준정중체와 특별히 더 높여 대하는 특별정중체로 나누어진다.

표준정중체의 수단으로는 《であります(입니다), です(입니다)／ます(～입니다)》가 쓰이며 특별정중체의 수단으로는 《でございます》(～올시다)가 쓰인다.

표준정중체를 일명 《です, ます체》라고도 하는데 이 말체안에도 여러 수준의 단계적 차이가 있다. 즉 《です, ます》를 문장끝에만 쓰는 단계, 문장가운데 《です, ます》를 넣어 《雨が降りましたので》(비가 내렸기때문에)처럼 표현하는 단계, 《です, ます》를 런체수식 구에도 적용하여 《昨日とりかわしました契約に基づきまして》(어제 교환한 계약에 토대하여)처럼 쓰는 등의 단계가 있다.

특별정중체에서는 지정하는 조동사부분을 《でございます》로 할뿐아니라 그것과 대우의 급을 맞추기 위하여 《おります》(《있습니다》의 겸손어), 《いたします》(《합니다》의 겸손어), 《申します》(《말합니다》의 겸손어), 《存じます》(《생각합니다》의 겸손어)와 같은 겸손어들을 많이 쓰며 《5時になります前に》(5시가 되기 전에)처럼 문장끝외에도 《です, ます》를 사용하여 상대방이 아닌 제3자까지도 존경어로 대우하는 등 일반적인 《です, ます》체보다 정중성을 높이게 된다.

보통체는 말하는 사람이 말을 듣는 사람이나 화제에 오르는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여 말할 때에 쓰이는 말체이다.

보통체는 명사,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의 종지형이나 여기에 조동사 《だ(~다), である(~이다)》를 붙이는 방법으로 표현된다.

《だ》체는 대체로 혼자말인 경우나 자기보다 손아래사람 혹은 특별히 친한 동무들사이에 하는 반말에 쓰인다.

《である》체는 《だ》체에 비하여 딱딱하고 격식적인 표현으로서 주로 글말에 쓰인다.

논문에서는 우와 같은 일본어에서의 말차림을 실지 회화에서 어떻게 설정하고 전환시키면서 회화상대방에 대한 레절을 표시하는가 하는 방식에 대하여 론하려고 한다.

일본어회화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상대방과의 인간관계나 사회적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말차림을 설정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레절을 표현하게 된다.

어떤 특정한 회화에서 회화참가자는 발화마다 무질서하게 말차림을 바꾸는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나 장면에 따라 해당 회화에서 기본으로 되는 말차림을 설정하게 된다. 이 기본으로 설정된 말차림을 《기본적인 말차림》이라고 부른다. 일단 설정된 기본적인 말차림은 회화의 진행과 더불어 일시적으로 다른 말차림으로 바뀌거나 다시 기본적인 말차림으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말차림전환이라고 한다.

기본적인 말차림이 회화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말차림을 몇가지 종류로 분류하는가 하는 문제에 따라 다르다. 중단문을 제외하고 차이가 가장 눈에 띄우는 정중체와 보통체의 두 종류의 분포에 주목하면 50%이상을 차지하는 쪽의 말차림이 기본적인 말차림으로 된다. 중단문도 포함시켜 비율을 계산하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것이 기본적인 말차림으로 된다.

* 보통체는 _____로, 정중체는 _____로 표시한다.

레1:

A: んー/なんかJ大、おしゃれになったと思わん?(응, J대학이 멋있어졌다고 생각되지 않니?)

B: 思うー。(생각돼.)

A: ねえ/なんか、(응/어딘가.)

B: /男の子も/なんかおしゃれになって。(남자애들도/ 멋쟁이가 되고.)

A: /男の子もすごいおしゃれなったよね。(남자애들도 아주 멋쟁이가 됐어.)

A: 女の子は前からさ多少はおしゃれな子もいたけど。(여자애들은 이전부터 좀 멋있는 애도 있었는데.)

B: そー んーんー。(그래, 응, 응.)

A: 男の子ってさおしゃれな子全然いなかったのに、(남자애들은 멋쟁이가 전혀 없었는데.)

B: そー んー。(그래, 응.)

A: もーすごい/おしゃれ。(대단해/멋쟁이야.)

B: /変わったよなー。(달라졌어.)

레2:

A: でもやっぱりうちの学部でも、もうぜんぜん関係ない人多いですよ。

(그러나 역시 우리 학부에도 이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B: あ, そうなんですか? (아, 그렇습니까?)

A: もう募集とかも、銀行がほとんどなんですよ。(이젠 모집같은것도 은행이 대부분입니다.)

B: 銀行? へー。(은행? 아.)

A: そうですね。(그렇습니다.)

B: 文系就職みたいですですね。(문과계통졸업생취직같습니다.)

A: そうですね。(그렇습니다.)

A: でも中に入ると結局何やってるんでしょう、(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결국 무엇을 하겠습니까?)

B: うん。(응.)

A: コンピュータとかやってるのかもしれない。(컴퓨터를 하고있을지도 몰라.)

B: あーそっか、ふーん。(아, 그럴가. 응.)

A: なんか、あのー、ダイレクトメール来るじゃないですか、(저, 우편직송광고가 오지 않습니까?)

B: あ、はいはい。(아, 예, 예.)

A: もう銀行ばかりですよ、なぜか。(이젠 은행뿐입니다. 왜 그런지.)

B: あ、そうなんです? (아, 그렇습니까?)

실례1은 보통체를 기본적인 말차림으로 선택한 실례이고 실례2는 정중체를 기본적인 말차림으로 선택한 실례이다.

실례1에서는 기본적인 말차림인 보통체만이 사용되고있으며 실례2는 기본적인 말차림인 정중체로부터 보통체로 종종 전환되고있다. 이로부터 보통체를 기본적인 말차림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정중체를 기본적인 말차림으로 설정하는 경우에 비하여 말차림전환이 적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보통체를 기본적인 말차림으로 설정한 실례1은 기본적인 말차림의 설정에서 같은 학년의 동년배관계를 표시한다면 정중체를 기본적인 말차림으로 설정한 실례2는 상대방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말차림전환을 리용하여 개인적인 친근감을 표시하려고 하였다.

례3:

A: え、C学部って、専攻があるんですよねえ? (C학부라니 전공이 있겠지요?)

B: あ、D学部なんですよ。(아, D학부입니다.)

A: あ、あー。(아, 아.)

B: /だから、全然ほんとはC学部っぽくないんですけど。(/그래서 실은 전혀 C학부같지 않은데.)

A: /へー。(아.) うんうんうん。(응.) えー。(예.)

B: うん。(응.)

A: あ、D学部って、あの、Nちゃん、/が、(예, D학부라면 N씨가.)

B: /あ、そうそう。(예, 그래요.)

A: {あーっ。} (아.)

B: Nちゃんに頼まれ/て。(N씨의 부탁을 받고.)

A: /あー、そうなん?(아, 그래요?)

B: うん。(응.)

A: へー/ん。(응.)

B: /え、□□サークルですか? じゃ。(예, □□소조입니까? 그럼.)

A: うん。そう/なん。(응. 그래요.)

B: /あ、なんの楽器、やってるん?(아, 무슨 악기를 하고있어요?)

A: トランペット。(트럼페트.)

실례3은 기본적인 말차림을 보통체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림시적으로 설정된 기본적인 말차림》으로부터의 말차림전환이다. 회화 첫 부분의 여러 발화는 상대방이 같은 학년이라는것을 모르고 첫 대면에서는 안전하다고 볼수 있는 정중체로 말을 시작하였는데 같은 학년이라는것을 알고 기본적인 말차림을 보통체로 설정하는것과 같은 경우는 처음의 정중체가 해당 회화의 기본적인 말차림설정에 이르기까지 《림시적으로 설정된 기본적인 말차림》이라고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전혀 얻을수 없는 상태에서 개시되는 첫 대면회화에서는 일반적으로 회화의 첫 부분에서는 안전하다고 볼수 있는 정중한 말차림을 립시 기본적인 말차림으로 설정해두고 될수록 빨리 상대방과의 관계(나이 나 사회적지위 등)를 명확하게 한 다음 기본적인 말차림을 설정하게 된다.

일본어회화에서 기본적인 말차림의 설정과 기본적인 말차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방에 따라 서로 다르게 된다.

우의 실례들에서 사회적지위 등이 같은 상대방과의 회화에서 회화참가자들이 기본적인 말차림설정에서 같은 수준을 선택하면서 매우 대칭적인 양상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적지위 등이 같은 상대방에 대하여 만일 한쪽이 보통체, 다른 한쪽이 정중체라는 서로 다른 기본적인 말차림을 선택한다면 서로간에 상하관계 등의 간격이 있는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말차림을 같게 선택하면 서로가 동년배관계라는것을 나타내는 레절표시로 되며 원활한 교제로 이어진다.

이처럼 같은 말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말차림을 어떻게 가려쓰는가 하는 관점은 대우표현과 경어연구의 중심적인 과제로 되어왔으며 말하는 사람이 대화상대방과의 인간관계나 장면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기본적인 말차림을 설정하는가 하는것은 레절표현방식연구의 중심적인 과제이다.

일본어회화에서는 다음으로 같은 상대방에 대한 서로 다른 회화에서의 기본적인 말차림의 변화를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레절을 표현하게 된다.

인간관계 등에서 큰 변화가 없는 한 회화가 진행되는 여러 조건(두사람사이의 잡담, 회의에서의 토의, 다른 참가자의 유무, 공식성정도 등)이 거의 같으면 같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말차림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그때마다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 때문에 보통체를 기본적인 말차림으로 설정한 상대방(친구 등)이 갑자기 정중체로 정색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얼마간의 특별한 의도가 있든가(곤난한 부탁 등) 인간관계가 변화되었든가(매우 성이 남) 등이라고 추측할수 있다.

그러나 같은 상대방에 대해서도 인간관계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변화되는것을 비롯하여 그밖의 심리적 및 사회적인 기본적인 말차림선택요인의 변화에 따라 기본적인 말차림이 변화되는것은 응당 있을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말차림의 변화를 같

은 회화에서의 일시적인 말차림변화인 《말차림전환》과 구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인 말차림의 변화의 실례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인간관계의 변화에 따르는 기본적인 말차림의 변화

<u>시간경과</u>		
<u>사이</u> 가 <u>친밀해</u> 짐	사이가 <u>멈</u> →	사이가 <u>가까워</u> 짐
<u>기본적인</u> 말차림	정중체 →	보통체

— 사회적요인의 변화에 따르는 기본적인 말차림의 변화

<u>시간경과</u>		
<u>상대방의 지위의</u> 변화	동료 →	사장
<u>기본적인</u> 말차림	보통체 →	정중체

기본적인 말차림의 변화는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말차림선택의 요인의 변화에 따라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일본어회화에서는 다음으로 말차림전환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례절을 표현하게 된다.

상대방이나 장면 등이 같은 회화에서는 기본적인 말차림이 일관하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기본적인 말차림으로부터 다른 말차림으로 바뀌거나 기본적인 말차림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은 말차림의 일시적인 전환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말차림전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회화속에서 일시적으로 기본적인 말차림이외의 말차림으로 전환하거나 되돌아가는 현상

② 말하는 사람의 앞뒤발화사이의 말차림전환

②는 말하는 사람과 상대방 쌍방의 앞뒤발화사이의 전환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발화사이에서의 전환을 말한다. 물론 회화상대방의 말차림도 말차림전환에 영향을 주는 조건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말하는 사람이 회화의 흐름속에서 말차림을 어떻게 조작하는가에 주목하기때문에 말하는 사람만의 말차림전환을 가리켜 말차림전환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예 4:

A: 一応試験は受けますけど、(일단 시험은 치겠습니다만...)

B: あ、そうなんですか。(아, 그렇습니까?)

A: でも、受からないことも、考えてますけど。(그러나 합격되지 못할 경우도 생각하고 있지만.)

B: あー、そんな。(아, 저런.)

A: なんか、いやじゃないですか、毎日ね、(매일 하자니 좀 싫지 않습니까?)

A: あ、なんか中間発表っていうのがこないだあったんですけど。(그 뭐라든가 중간발표라는것이 최근에 있었는데.)

B: あー。(아.)

A: なんかそれで、ずっと準備とかしてて、...(그래서 계속 준비하고있다가...)

A: でふと、「なんかこんな一生やるんかな。」(《참 이런걸 일생 하는게 아니야.》)

A: と思ってしまったりしたら、(하고 생각하곤 하면,)

B: ははは。(하하하.)

A: お先真っ暗って感じ。(눈앞이 새까매지는 느낌이지요.)

우의 실례에서는 정중체를 기본적인 말차림으로 설정하고 박사원에서의 연구와 박사후 기과정으로의 진학이 화제로 되고있으며 장래를 비관하는것과 같은 내용을 말할 때에 보통체으로의 말차림전환이 나타났다. 같은 학년의 박사원생이라면 서로 이해할수 있는 정황을 통담비슷한 어조로 말함으로써 인간관계의 접근을 원하고있으며 쌍방에 웃음이 동반되어있는것으로부터 인간관계의 접근전략으로서의 말차림전환이 성공했다고 볼수 있다.

말차림전환의 빈도는 기본적인 말차림이 전체 발화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회화자료로부터 말차림전환이 생기는 조건과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말차림전환이 생기는 조건과 기능

방향	문맥	조건	기능
보통체 으로의 전환	심리적 문맥	친근감을 나타낼 때 통담을 할 때	인간관계의 밀접화
		상대방의 보통체의 발 화에 맞출 때	상대방에 대한 공감
	언어적 문맥	혼자소리같은 발화 자문형식의 발화	발화가 말하는 사람자신에게 향해져있다는것을 나 타내는 회화표식(허물없는 분위기도 나오기때문에 인간관계의 밀접화인 경우도)
		확인할 때 확인을 위한 질문/대답 할 때	발화를 간결하게 함으로써 회화가 원활하게 흐르 게 한다.
		중단문형식의 발화	명백한 발언을 피하고 분위기를 완화시키거나 상 대방에게 말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정중체 으로의 전환	언어적 문맥	(일시적인 전환에서) 기본적인 말차림으로 되돌아갈 때	당시까지의 말차림사용이 일시적인것이며 해당한 정황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기본적인 말차림에 서 벗어나려고 한것은 아니라는것을 나타낸다.
		새로운 화제를 도입할 때	화제/회화단위의 변화를 나타내는 회화표식
	심리적 문맥	새로운 화제를 도입하 는 질문에 대답할 때	상대방의 발화수준에 맞추으로써 레의를 유지한다.

이와 같이 상대방과의 인간관계나 사회적관계 등에 맞는 말차림을 설정하고 관리하
면서 레절을 표시하는 방법은 회화에서 중요한 레절표현방식의 하나로 된다.

우리는 레절표현방식을 비롯한 일본어회화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리론실천적인 문
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을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겸비
한 인재들로 준비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일본어회화, 말차림관리, 정중체